

2017년 7월 13일 공보 2017-7-18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7년 7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석원, 차장 김용민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16.3/4	4/4	17.1/4	2/4	3월	4월	5월	6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3.5	2.1	1.4	..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9	1.6	1.0	..	0.1	0.4	-0.3	..
	제조업생산(전기비, %) ¹⁾	0.0	0.4	0.6	..	-0.8	1.1	-0.4	..
	ISM제조업(기준=50) ²⁾	51.1	53.3	57.0	55.8	57.2	54.8	54.9	57.8
	실업률(%) ¹⁾²⁾	4.9	4.7	4.7	4.4	4.5	4.4	4.3	4.4
	비농기취업자수증가(만명) ¹⁾²⁾	23.9	14.8	16.6	19.4	5.0	20.7	15.2	22.2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4	0.5	0.6	..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5	1.0	0.4	..	0.4	0.1	0.4	..
	산업생산(전기비, %) ¹⁾	0.3	1.0	0.1	..	0.4	0.3	1.3	..
	제조업PMI(기준=50) ²⁾	52.1	54.0	55.6	57.0	56.2	56.7	57.0	57.4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4.2	106.9	108.0	110.0	108.0	109.7	109.2	111.1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7	6.8	6.9	..	-	-	-	-
	수출(전년동기비, %)	-7.0	-5.3	8.1	..	16.4	8.0	8.7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10.5	10.6	10.0	..	10.9	10.7	10.7	..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8.2	8.1	9.2	..	9.2	8.9	8.6	..
	제조업PMI(기준=50) ²⁾	50.2	51.4	51.6	51.4	51.8	51.2	51.2	51.7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5.0	-3.1	1.0	..	1.7	-4.3	4.0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0	1.7	0.1	..	0.8	2.3	5.6	..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은 유가 등락,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지표¹⁾

		17.2월	3월	4월	5월	6월	7.12일
전세계 MSCI		444.5	448.9	455.2	463.8	465.1	469.6
- 선진국		1,838.7	1,853.7	1,878.3	1,911.7	1,916.4	1,932.9
- 신흥시장국		936.4	958.4	978.0	1,005.3	1,010.8	1,029.9
(중국 ²⁾)		3,241.7	3,222.5	3,154.7	3,117.2	3,192.4	3,197.5
VIX		12.9	12.4	10.8	10.4	11.2	10.3
환율	달러인덱스	101.1	100.4	99.1	96.9	95.6	95.8
	중국 ³⁾	6.87	6.89	6.90	6.81	6.78	6.79
	브라질 ³⁾	3.11	3.12	3.18	3.23	3.31	3.21
	인도네시아 ³⁾	13,339	13,324	13,328	13,310	13,326	13,372
국채금리 ⁴⁾ (%)	미국	2.39	2.39	2.28	2.20	2.30	2.32
	독일	0.21	0.33	0.32	0.30	0.47	0.58
CDS프리미엄(bp)	브라질	224.0	225.7	217.8	235.7	241.4	228.3
	인도네시아	130.2	128.3	127.3	124.5	117.5	117.9
	한국	45.4	50.5	57.2	56.2	52.7	58.2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국제유가 향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GDP 성장률은 4월 전망치(2.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지표

	2014	2015	2016	16.3/4	4/4	17.1/4	2/4	3월	4월	5월	6월	(%)
GDP 성장률 ¹⁾	3.3	2.8	2.8	0.5	0.5	1.1	..	-	-	-	-	-
(민간소비)	1.7	2.2	2.5	0.6	0.2	0.4	..	-	-	-	-	-
(설비투자)	6.0	4.7	-2.3	0.9	5.9	4.4	..	-	-	-	-	-
(건설투자)	1.1	6.6	10.7	2.2	-1.2	6.8	..	-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2.0	4.1	4.3	-1.2	2.1	-0.5	..	-0.3	0.7	-0.9
설비투자지수 ²⁾	5.2	6.9	-1.3	-1.9	8.0	5.6	..	13.4	-3.9	1.8
건설기성액 ²⁾	-0.7	5.0	15.4	4.2	4.1	5.9	..	3.5	-4.3	-1.6
수출(통관) ³⁾	2.3	-8.0	-5.9	-5.0	1.8	14.7	16.9	13.1	23.8	13.3	13.7	
- 일평균 ³⁾	3.3	-8.7	-5.9	-5.0	0.4	13.0	17.8	13.1	23.8	16.0	13.7	
제조업생산지수 ²⁾	0.3	-0.3	1.0	0.1	0.8	1.5	..	1.4	-2.2	0.2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3	2.9	3.0	1.0	-0.3	0.9	..	0.3	0.1	-0.3
소비자심리지수 ⁴⁾	106.0	102.7	99.5	101.6	97.3	94.8	106.8	96.7	101.2	108.0	111.1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6	71	70	71	72	77	81	79	83	82	78	
취업자수 증감 ⁶⁾	533.0	336.9	298.9	317.5	302.2	360.1	366.7	466.2	424.1	374.8	301.3	
(제조업)	145.6	156.3	-4.6	-71.4	-110.3	-111.8	-23.4	-83.3	-61.5	-24.9	16.1	
고용률(원계열, %)	60.2	60.3	60.4	61.1	60.7	59.4	61.2	60.2	60.8	61.3	61.4	
실업률(원계열, %)	3.5	3.6	3.7	3.6	3.2	4.3	3.9	4.2	4.2	3.6	3.8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천명(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가]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균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균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6.3/4	4/4	17.1/4	2/4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¹⁾	0.7 (0.2)	1.5 (0.6)	2.1 (1.1)	1.9 (0.0)	2.2 (0.0)	1.9 (-0.1)	2.0 (0.1)	1.9 (-0.1)
▪ 농축수산물	3.1	7.5	6.1	6.1	5.8	4.5	6.2	7.6
(농산물)	2.1	9.1	4.7	3.6	4.0	1.6	2.5	7.0
▪ 공업제품	-0.5	0.4	2.1	1.3	2.4	1.5	1.4	0.9
(석유류)	-8.1	-2.3	12.0	7.7	14.4	11.7	8.9	2.8
(석유류 제외)	0.8	0.8	0.7	0.3	0.6	0.0	0.3	0.6
▪ 전기·수도·가스	-13.0	-8.7	-6.9	-2.4	-3.9	-3.9	-1.6	-1.6
▪ 서비스	2.2	2.1	2.1	2.0	2.1	2.2	2.0	1.9
균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9	1.7	1.7	1.5	1.7	1.5	1.5	1.5
▪ 농산물·석유류 제외	1.4	1.5	1.5	1.4	1.4	1.3	1.4	1.4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4	2.5	2.7	2.6	2.6	2.6	2.5	2.6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상당폭 오르고,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조하여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주가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내금융지표

	17.2월	3월	4월	5월	6월	7.12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33	1.32	1.31	1.27	1.30	1.28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67	1.66	1.68	1.66	1.70	1.76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2.16	2.18	2.20	2.23	2.21	2.27
KOSPI ¹⁾	2,092	2,160	2,205	2,347	2,392	2,392
원/달러 환율 ¹⁾	1,131	1,118	1,138	1,120	1,144	1,145
(전월말대비 절상률, %)	2.78	1.10	-1.71	1.64	-2.15	-0.09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6.3/4	4/4	17.1/4	2/4	3월	4월	5월	6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²⁾	20.8	19.7	5.9	17.1	2.9	4.7	6.3	6.2
▪ 주택담보대출 ²⁾³⁾	17.0	15.1	5.5	11.4	2.6	3.3	3.8	4.3
▪ 기타대출 ⁴⁾	3.8	4.5	0.5	5.7	0.4	1.3	2.5	1.8
주택 매매가격(%) ⁵⁾	0.2	0.4	0.1	0.5	0.1	0.1	0.1	0.2
▪ 수도권 ⁶⁾	0.4	0.6	0.1	0.7	0.1	0.1	0.2	0.4
(서울)	0.7	0.9	0.2	1.2	0.1	0.2	0.4	0.7
▪ 광역시 ⁷⁾	0.2	0.6	0.2	0.4	0.1	0.1	0.1	0.1
▪ 지역 ⁸⁾	0.0	0.2	0.1	0.2	0.0	0.1	0.1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